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초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50대 중국 남성의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뷰티산업학과
진 가 청

20~50대 중국 남성의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박 초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뷰티산업학과

진 가 청

인 준 서

진가청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김 주 덕 (인)

심 사 위 원 신 정 원 (인)

심 사 위 원 박 초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단순한 자기표현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식습관 불균형, 환경오염, 과도한 시술 등 다양한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탈모가 증가하면서 자존감, 사회적 자신감,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국가 위생 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 인구는 약 2억 5,200만 명이며, 이 중 남성형 탈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탈모 치료 서비스 및 두피관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 내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 간의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국 2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증상과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탈모증상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연령대별 탈모 대응 행동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 전략 및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중국에 거주 중인 20~50대 탈모 경험이 있는 남성 4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5문항, 탈모증상 11문항, 두피상태 10문항,

두피관리행동 12문항, 헤어스타일 관심도 8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MAC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hi-Square 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40~4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기혼'의 비율이 높았다.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소득은 '6,000위안 이상~12,000위안 미만'이 우세했다.

둘째, 두피 및 모발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모발은 대체로 가늘거나 손상된 상태였다. 탈모는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발병 시기는 '6개월 미만'과 '5년 미만'이 많았다. 탈모 형태는 'C자형'이 주를 이루었고,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와 '별적인 요인'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탈모 심화가 두드러졌고, 40대는 스트레스, 50대는 피부질환을 원인으로 인식했다. 대응 방식은 연령에 따라 20대는 병원 치료, 40대는 습관 개선, 50대는 방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연령이 높을수록 두피상태는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40대와 50대는 20대와 30대보다 전반적으로 두피 건강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나이가 많을수록 두피전문관리, 두피인식, 두피관리행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헤어스타일을 통한 자기표현과 타인인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또한, 탈모정도거나 평균 탈모량이 많을수록 두피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두피관리행동과 헤어스타일 관심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탈모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지 않았다.

넷째, 탈모증상은 두피상태를 악화시키고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높은 관심은 두피관리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두피상태 역시 탈모증상과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피상태가 악화되지만 두피관리와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며, 탈모증상은 두피상태와 두피관리행동, 두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2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와 두피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표본의 연령 편중과 온라인 자기보고 방식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세대별 맞춤형 관리 전략과 더불어, 임상적 진단을 병행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탈모 관리를 외모 중심이 아닌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자기표현과 연계한 통합형 관리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4
1. 탈모의 정의 및 원인	4
2. 두피상태	12
3. 두피관리행동	16
4. 헤어스타일 관심도	18
III. 연구대상 및 방법	20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20
2. 자료 분석	20
3. 조사 도구	2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2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2. 연구 대상자의 두피 및 모발 상태와 탈모 실태	24
3. 연령에 따른 두피 및 모발 상태와 탈모 실태의 차이	28
4. 환경 요인의 탈모 영향 순위	36

5. 연령에 따른 탈모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38
6.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40
7. 연령에 따른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 분석	45
8. 탈모증상에 따른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 이분석	49
9.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상관관계 ·	57
10.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미치는 영향	59
V. 결론 및 제언	66
1. 결론	66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6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21
〈표 2〉 일반적 특성	23
〈표 3〉 두피 및 모발 상태	25
〈표 4〉 탈모 실태	27
〈표 5〉 연령에 따른 두피 및 모발 상태	29
〈표 6〉 연령에 따른 탈모증상	32
〈표 7〉 연령에 따른 탈모 원인	35
〈표 8〉 환경 요인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	37
〈표 9〉 연령에 따라 탈모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39
〈표 10〉 두피상태의 타탕도 및 신뢰도	40
〈표 11〉 두피관리행동의 타탕도 및 신뢰도	42
〈표 12〉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타탕도 및 신뢰도	44
〈표 13〉 연령에 따른 두피상태의 차이분석	45
〈표 14〉 연령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분석	48
〈표 15〉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48
〈표 16〉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상태의 차이분석	50
〈표 17〉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분석	52
〈표 18〉 탈모증상에 따라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55
〈표 19〉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	58
〈표 20〉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60
〈표 21〉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관리행동 및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	62
〈표 22〉 두피관리행동이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	64
〈표 23〉 두피상태가 탈모증상에 미치는 영향	6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오늘날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외모는 단순한 자기표현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중산층의 부상과 남성 자아 인식의 변화는 남성의 외모 관리에 대한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Yan NanNan, 2022). 특히 외모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증대되는 양상인데,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왕시셴, 2023).

이러한 외모 관리 트렌드 속에서 탈모는 새로운 사회적 건강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의 증가와 불균형한 식습관, 환경오염, 과도한 다이어트, 잦은 펌 및 염색 등 후천적 요인들이 탈모를 가속화한 결과로 기존에 탈모는 유전이나 노화에 기인한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탈모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김미숙, 2023).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탈모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존감 저하뿐 아니라,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나아가 삶의 질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단, 2020). 따라서 많은 남성들이 외모를 일종의 자기 가치 표현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화장과 모발 관리, 미용 기술, 피부 및 두피관리 등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오늘날 남성들은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위한 외모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남성 뷰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박민선 외, 2020).

중국 국가 위생 건강위원회(IiMedia Research, 2024)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내 탈모 인구는 약 2억 5,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7,000만 명 이상이 남성형 탈모를 보이고 있다. 국무원은 2024년 발표한 정책 의견을 통해 모발 건강 분야의 연구 심화를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인구 중 약 62.5%가 두피·모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탈모 문제를 경험한 인구 비율도 53.0%에 달한다.

또한 CBNDData(2024)가 발표한 ‘2024 중국 두피 건강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는 60% 이상의 중국인이 두피 건강에 관심을 가졌고, 2023년에는 80% 이상이 실제로 두피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의 두피 건강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방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탈모 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보경(2025)의 ‘중년남성들의 두피·탈모에 대한 인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오은경(2023)의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가치관이 외모관심도와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2023)의 ‘성인의 헤어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두피·모발관리행동의 매개효과’, 김윤영, 김희숙(2023)의 ‘20~40대 남성의 탈모 상태가 탈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단(2020)의 ‘중국 탈모시장에 대한 마케팅전략 조사분석 보고서’, Ren Yifei (2021)의 ‘중국 20~40대 두피 모발 관련에 따른 인식조사 중국 남부지역 성인 대상’, 석서임(2021)의 ‘탈모 유발요인에 따른 두피 탈모개선 및 관리행태에 관한 연구’ 등 중·한의 남성들의 다양한 탈모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두피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탈모증상 및 두피상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며,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탈모,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국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20~50대 중국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그리고 헤어스타일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탈모증상이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 특히 두피관리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는 연령대별 탈모 대응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여 미용 산업 및 두피관리 관련 산업의 맞춤형 서비스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구축을 위한 데이터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별에 따른 탈모증상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연령별에 따른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탈모증상에 따른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탈모의 정의 및 원인

1) 탈모의 정의

탈모(Alopecia)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모발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여 두피가 점차 드러나는 외형적 변화로 나타난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더 많아지는 병리적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을 의학적으로 탈모라고 정의한다(정기쁨, 2017).

정상적인 하루 탈모량은 약 50~100개이며, 모발은 약 5~8년간의 성장기를 거쳐 퇴행기와 휴지기를 지나고, 2~3개월 후 새로운 모발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김윤영 외, 2023). 그러나 탈모는 모모세포의 기능이 약화되어 모발의 성장주기가 짧아지고, 휴지기에서 다음 성장기로 전환되는 시간이 길어져 모발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채 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손유미, 2024). 그 결과, 탈모의 특징으로는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약 200개로 증가하고, 성장기가 짧아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연모화 현상이 나타난다(이혜경, 2021).

2) 탈모의 원인

(1) 내부 원인

① 유전적 요인

탈모의 유전적 원인은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모낭의 반응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탈모 유전자의 유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모 유발 환경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체질 유전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단일 유전자가 아닌 여러 유전자의 복합 작용에 의해 후대에게 유전되기에 탈모는 다유전자성 질환으로 분류된다(조성일, 2015).

이러한 유전적 요인과 특히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탈모의 유형이 남성형 탈모(Male Pattern Baldness, MPB)로, 남성형 탈모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경향을 보인다(Eunyoung Choi, 2024). 이러한 남성형 탈모는 안드로젠성 탈모(Androgenetic Alopecia, AGA)로도 불리며, 사춘기 이후 정수리와 전두부의 모발이 점진적으로 점차 가늘어지고 짧아지면서 연모(Vellus Hair)로 퇴화하는 증상을 보인다(Sadasivam et al., 2024). 이 같은 탈모는 나이 증가와 유전적 소인, 그리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ehydrotestosterone, DHT) 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DHT는 안드로젠 수용체와 결합하여 모낭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세포 활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모발의 성장 단계를 단축하여 탈모가 발생케 한다(황경옥, 2023).

한편, 중국 한족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 감수성 유전자 좌위 연구를 진행한 Li et al.(2024)은 이전에 보고된 남성형 탈모(MPB) 관련 전장 유전체연관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GWAS) 연구에서 선별한 47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대상으로, 한족 남성 환자 499명과 대조군 1,489명을 대상으로 Sequenom MassArray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거친 후, 25개의 SNP를 통계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에서는 Cochran - Armitage 경향 검정을 통해 SNP와 질병 감수성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2q31.1에 위치한 SNP rs13405699가 한족 남성의 MPB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 간에도 일부 공통된 감수성 유전자/좌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민족 집단에서 MPB의 유전적 감수성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MPB의 발병 기전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질병 요인

신체적 질환 역시 주요한 탈모 유발 원인이 된다. 모발은 모모세포의 활발한 분열과 호르몬, 혈액 순환, 성장 인자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데, 이들 생리 작용이 질병에 의해 방해받으면 모낭 손상 및 모발 생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매독, 간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병, 고혈압, 신장 질환, 장티푸스와 같은 전신 질환은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선, 백선, 지루성 피부염 등 두피 질환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최에스더 외, 2014).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유형은 자가면역성 질환인 원형 탈모증(Alopecia Areata, AA)으로, CD8⁺T 세포에서 방출된 인터페론 감마(IFN- γ)가 모낭의 면역 상태를 파괴하고 IL-15 발현을 유도하여 I형 세포 매개 자가면역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발생한다(He et al., 2025). 그 결과 갑작스럽게 경계가 분명한 원형의 탈모반이 나타나게 되며, 심한 경우 전두 탈모증(Alopecia Totalis, AT)이나 전신 탈모증(Alopecia Universalis, AU)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AA 환자는 약 349만 명에 이르며, 이 중 남성 환자가 약 1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

치이다. AA는 갑상선염, 루푸스, 백반증 등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Li et al., 2025).

(2) 외부 요인

① 약물 부작용

약물 부작용은 탈모 유발의 주요 외부 요인 중 하나로, 특히 급성 생장기 탈모(Anagen Effluvium)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발생 기전은 다른 유형의 탈모와는 차이가 있다. 주요 원인은 약물이 모낭 세포의 정상적인 유사 분열 과정을 방해하거나, 체내 대사 기전을 교란함으로써 탈모를 유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약물의 독성 정도에 따라 모낭 유사 분열 억제 효과에는 차이가 있으며, 강한 자극을 받을 경우 모발이 갑작스럽게 끊어질 수 있고, 자극이 미약할 경우에는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며 끝내 끊어지게 된다(조성일, 2015).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는 항암제, 여드름 치료제, 갑상선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혈전용해제, 심장병 치료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위궤양 및 위염 치료제, 소화불량 치료제, 진균 감염증 치료제, 통풍 치료제, 비만 치료제, 녹내장 치료제, 호르몬 관련 약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석서임, 2021). 다만, 약물로 인한 탈모는 회복되거나 약물 중단 시 비교적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최에스더 외, 2014).

② 다이어트

최근 간헐적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과 같은 식이 조절은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신진대사나 노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나 급격한 체중 감량은 모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iNature, 2021).

Chen et al.(2025)의 연구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일반적인 간헐적 단식 방식—하루 중 8시간만 식사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단식하는 ‘16/8 제한 식사법’과, 24시간 단식과 24시간 자유 식사를 번갈아 시행하는 ‘격일 단식법’을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식사하는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간헐적 단식은 부신과 진피 지방세포 간의 세포 간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켜 유리 지방산(Free Fatty Acid, FFA)의 빠른 방출을 유도하였고, 이는 모낭 줄기세포의 미세환경을 교란시켜 줄기세포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세포 내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 수치를 증가시켜 모낭 줄기세포(Hair Follicle Stem Cells, HFSCs)의 사멸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과로 및 스트레스

현대인은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과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적·육체적 피로, 수면 부족, 환경오염 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탈모 자체가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김미숙, 2024).

스트레스는 탈모의 주요 촉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 기능을 저해하여 모유두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

액 순환 장애를 유발해 모낭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김보경 2025). 스트레스성 탈모는 특히 예측 불가능성이나 사회적 좌절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더욱 심화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모낭 내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호르몬(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CRH)과 그 수용체(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Receptor, CRHR)의 발현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금 mTOR-ULK1 경로를 활성화하여 세포 자가 포식 기능을 억제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모낭 재생 장애 및 모발 성장 주기의 혼란이 야기되며 탈모를 촉발하게 되는 것이다(Liang et al., 2024).

Zhang et al.(2020)에 따르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활성이 억제되면 탈모가 감소하고, 반대로 과활성화되면 발육 부전이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컨대 스트레스와 모낭 줄기세포 기능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과로와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특히 만성 피로 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CFS)은 탈모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장기간의 피로, 인지 저하, 신체 통증, 면역 체계 이상, 내분비 불균형 등과 같은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이러한 증상은 철분 흡수 저하 및 갑상선 기능 저하와도 관련되어 탈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谷和健康, 2024).

(3) 탈모 현황

탈모는 유전, 호르몬, 연령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특히 남성형 탈모는 사춘기 이후 DHT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Wang et al.(2010)이 실시한 중국 6개 도시의 안드로겐성 탈모(MPB)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전체 남성 AGA 유병률은 21.3%였으며, 연령대별로는 18~29세 2.8%, 30~39세 13.3%, 40~49세 21.4%, 50~59세 31.9%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탈모의 발병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 중국 남성의 MPB 유병률은 45.72%로 보고되었고 이는 10여 년 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中國美容整形外科雜誌, 2019). 또한, '2024년 중국 탈모·백발 치료 산업 통찰 보고서'의 내용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36~45세 연령대가 전체 탈모 인구 중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요컨대 이들 조사는 탈모 연령이 이전 세대에 비해 20년 가량 앞당겨진 상황을 보여주며, 오늘날 탈모 현상이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세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LiMedia Research, 2024).

3) 탈모 형태

탈모의 초기 전조 증상은 모발의 점진적 가늘어짐, 볼륨 감소, 쉽게 끊어짐, 모발의 탄력 저하, 두피 피지 과다, 여드름 및 가려움증, 비듬의 급증 등으로 나타난다(김남희, 2009).

남성형 탈모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성 호르몬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남성형 탈모는 일반적으로 이마의 모발선이 후퇴하면서 M자 형태의 이마 양측이 깊게 패이고, 정수리를 중심으로 탈모가 진행되며, 후두부와 측두부를 제외한 부위의 모발이 점차 소실되는 특징을 보인다(우진아, 2017).

남성형 탈모의 분류 방법으로는 Hamilton 분류, Norwood 분류, Ogata 분류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 Ogata 분류는 일본의 Ogata가 제시한 방식으로, 이마 전체 모발선이 후퇴하는 'C형', 이마 양쪽이 깊게 패이는 'M형', 정수리에 탈모가 집중되는 'O형'으로 분류되며, 복합형인 'M+O형'도 존재한다(석서임, 2021).

2. 두피상태

두피는 모발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피부 조직으로, 건강한 두피는 모낭의 기능적 활성을 유지하고, 모발 성장 주기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두피는 피부와 동일하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며(이백하, 2024), 특히 표피는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각질층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다. 정상적인 두피에서는 약 4~6주의 주기로 표피 세포가 각질화되어 탈락하지만, 스트레스, 피지선 이상, 영양 불균형 등 환경적·내적 요인에 의해 이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이 경우, 두피에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축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듬, 염증, 탈모 등 다양한 두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박윤영, 2019).

두피는 피지선과 땀샘(한선)의 활동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성 두피, 건성 두피, 지성 두피, 민감성 두피, 비듬성 두피, 그리고 복합성 두피로 분류되며(장지연,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두피상태의 특성을 크게 정성 두피, 건성 두피, 지성 두피, 민감성 두피, 비듬성 두피, 복합성 두피로 구분하였다.

1) 정성 두피

정성 두피는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의 두피 유형으로, 피지와 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두피 톤은 유백색에 가깝고, 표면은 깨끗하며 각질이나 피지 산화물의 축적이 없어 모공이 막힘 없이 잘 개방되어 있다(신수정, 2022). 또한, 모발은 굵기가 균일하고 모공이 깨끗하게 열려 있어 영양분 흡수가 원활하며, 모공 간격도 고르게 유지되고 있으며, 하나의 모공에서 서로 다른 생장 주기를

가진 2~3개의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배귀자, 2024).

2) 건성 두피

건성 두피는 피지 분비와 수분 보유력이 모두 부족한 상태로, 두피 장벽 기능이 약화되어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되며,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고 수분 증발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두피가 자주 건조하고 당기며, 윤기 없이 뿌옇고 거친 표면이 나타난다. 노화된 각질이 쉽게 들떠 떨어지며,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홍하나, 2016). 심한 경우에는 두피가 갈라지거나 표피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피지 분비 부족으로 인해 모공이 각질로 막히기 쉬워 혈액 순환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유발된다(주민경, 2018).

3) 지성 두피

지성 두피는 피지 분비가 많아 번들거리고 탁해 보이며, 피지에 영긴 비듬과 각질이 붙어 있다. 이로 인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노폐물이 모낭을 막아 염증이나 지루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소연, 2023). 두피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부 질환은 탈모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지성 두피는 호르몬 불균형, 정신적 스트레스, 고지방·고당 식습관 등 내부 요인과 함께, 불충분하거나 과도한 세정, 강한 자극을 동반한 마사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겨난다(김여운, 2014).

4) 민감성 두피

민감성 두피는 외부 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두피 색이 붉고 육안으로 싹뿔줄이나 염증 부위가 보이기도 한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다(박지은, 2012). 이러한 상태는 잦은 염색이나 파마 등의 반복적인 화학적 시술, 자극적인 세정제 사용, 호르몬 불균형, 환경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며, 심한 경우에는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감성 두피는 탈모보다는 두피 건강의 전반적인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낭의 기능을 저해하여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지민영 2012).

5) 비듬성 두피

두피의 노화로 인한 각질 탈락은 비듬이라 하며, 과도하게 쌓인 비듬은 비듬균 증식으로 가려움을 유발한다. 비듬은 지성과 건성으로 구분되며, 지성 비듬은 피지와 노폐물, 각질이 엉켜 생기고, 건성 비듬은 두피 건조로 인해 작고 얇은 형태로 나타나며 가려움과 다양한 두피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김가경, 2023). 초기에는 분비된 피지가 모낭을 막아 두피를 번들거리거나 딱딱하게 만들지만, 점차 증상이 심화됨에 따라 모발이 지속적으로 가늘어지며, 모공 당 모발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며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심옥윤, 2023).

6) 복합성 두피

복합성 두피는 두피 자체는 지성이지만, 모발은 건조한 상태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유형이다. 이는 피지 분비는 과도한 동시에, 폼이나 염색, 드라이와 같은 화학적·물리적 시술로 인해 모발 자체는 손상되고 수분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다(장지연, 2012). 이러한 상태에서 두피 경직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모근에 압박을 가하여 혈류 순환을 저해하며, 그리하여 모발로 전달되는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모발은 건조하고 취약해짐으로써 탈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두피상태는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과로, 영양 결핍, 유전적 소인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며, 장기간 방치할 시엔 전반적인 두피 및 모발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주민경, 2018).

3. 두피관리행동

두피관리는 모발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두피 생태계를 최적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미용 기술과 더불어 일상적인 샴푸, 트리트먼트, 두피 전용 제품, 그리고 두피관리 기기를 활용한 자가 관리가 두피관리에 포함된다(이서희, 2020). 이러한 두피관리의 주요 목적은 노폐물과 과도한 피지, 산화된 각질, 외부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두피와 모낭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두피를 약산성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두피의 pH 균형을 조절하고, 모발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거나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다(김주섭 외, 2013).

특히 두피관리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두피에 병변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두피관리는 선제적 행동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단순한 청결 유지를 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마사지를 통한 혈액 순환 촉진, 보습과 영양 공급, 전문 기기를 활용한 클렌징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박지혜, 2016). 전문 두피관리 센터나 헤어 클리닉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관리는 모발 건강 유지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이해된다(송인영, 2019).

두피의 취약성과 모발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관리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모발에 가려진 두피는 통풍이 어려워 습도가 높고, 이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거나 피지와 노폐물이 쉽게 축적될 수 있다. 여기에 노화, 계절 변화, 화학적 시술의 영향으로 민감해지거나 건조해지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다(임은진, 2016). 따라서 두피관리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曾万祥, 張穎(2019)은 최근의 두피관리 경향이 피부 관리처럼 섬세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수반하는 ‘피부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두피관리는 일상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젊은 세대는 탈모 예방을 중시하며 두피 에센스나 발모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정교한 두피관리는 단순한 세정 단계를 넘어서 모낭 깊숙한 곳까지 작용하는 고차원적 케어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4. 헤어스타일 관심도

외모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며, 타인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개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개선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동력을 제공하지만(이정은, 2021), 오늘날 외모는 단순한 개인적 욕구를 넘어선 사회적 인식의 잣대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는, 동시대 사회에서 외모가 단순한 신체적 특성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지위, 자기표현, 그리고 성취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외모 개선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사회적 인정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진주, 2022).

헤어스타일은 이러한 외모 관리의 중요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가장 빠르고 쉽게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다양한 연출을 통해 얼굴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격, 정체성, 사회적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한효주, 2019). 헤어스타일이 내포한 문화적 함의에 의한 것으로, 헤어스타일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과 미적 기준, 트렌드 등을 반영하며 변화해왔기 때문이다(박혜연, 2016). 요컨대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걸치장의 의미를 넘어 일종의 문화적 코드로서 개인을 표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헤어스타일을 비롯한 외모 관리에 대해 높아진 인식은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징둥(京東)과 웨이핀후이(唯品會)가 공동 발표한 ‘중국 양성 소비 트렌드 보고서(2018)’에 따르면, 남성의 자기 관리 의식이 향상되면서 스킨케어, 미용,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일명 그루밍 경제로 명명된다.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이었던 뷰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능동적으로 관리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李國·武江民, 2021).

IiMedia Research(艾媒諮詢)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 소비자들은 남성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내 브랜드 공식 스토어(타오바오)가 4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온라인 자체 운영 상점 또는 미니 프로그램은 43.48%, 쇼핑몰 내 화장품 매장은 40.34%이었다. 2024년에 집계된 통계는 남성의 화장품 소비가 대개 일상적인 자기 관리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개별 심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경쟁력 확보와도 연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뷰티 산업의 성장을 이끌게 된다. Zhiyan Consulting(智研諮詢)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COVID-19의 확산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중국 뷰티 산업의 신규 개점률은 25.8%로 급등하여, 2019년의 10.6%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성장세 속에서 특히 탈모와 관련된 뷰티 산업이 두드러지는데, 탈모에 민감한 남성들이 관련 산업의 주요 소비자층을 형성하여 단순한 모발 이식을 비롯한 눈썹 이식, 수염 이식, 체모 이식 등의 다양한 시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미용 시술은 외모 개선과 심리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미용 행동, 특히 탈모 관리 및 두피관리행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외모 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의 자기관리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지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50대 중국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현재 탈모 중이거나 탈모 경험이 있는 중국 거주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2024년 12월 13일~12월 23일까지 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총 426부를 배포하였으며, 대상 적성 불성실한 응답이 4부를 제외한 422부를 최종 분석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MAC. 2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hi-Square Test),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사용되었다.

3.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크게 5가지로 일반적 특성 5문항, 탈모증상 12문항, 두피상태 10문항, 두피관리행동 11문항, 헤어스타일 관심도 8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척도	문항수	출처
일반적 특성	명목척도	5	유송이(2021)
탈모증상	명목척도	11	이은주(2009) 석서임(2021)
두피상태	5점 리커트	10	강진주(2018)
두피관리행동	5점 리커트	12	송인영(2020) 김광희(2017)
헤어스타일 관심도	5점 리커트	8	윤채의(2020) 김창현(2016)
총		4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40~49세'가 163명(3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50~59세'가 142명(33.6%), '30~39세'가 70명(16.6%), '20~29세'가 47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에서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60명(3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158명(37.4%), '중학교 졸업 및 미만'이 68명(16.1%),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36명(8.5%)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여부의 경우, '기혼'이 283명(67.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혼'이 94명(22.3%), '기타(독신, 이혼, 사별, 별거 등)'가 45명(10.7%)으로 조사되었다.

직업 분포에서는 '판매, 서비스직'이 126명(29.9%)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94명(22.3%), '사무직'이 59명(14.0%), '무직(취업 준비생 포함)'이 45명(10.7%), '자영업'이 39명(9.2%), '학생'이 30명(7.0%), '기타'가 29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을 분석한 결과, '6,000위안 이상~12,000위안 미만'이 199명(4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00위안 이상~6,000위안 미만'이 120명(28.4%), '3,000위안 미만'이 64명(15.2%), '12,000위안 이상~24,000위안 미만'이 25명(5.9%), '400만 원 이상'이 14명(3.3%)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일반적 특성

(N=422)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N)	퍼센트(%)
연령	20~29살	47	11.1
	30~39살	70	16.6
	40~49살	163	38.7
	50~59살	142	33.6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및 미만	68	16.1
	고등학교 졸업	158	37.4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60	38.0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6	8.5
결혼 여부	기혼	283	67.0
	미혼	94	22.3
	기타(독신, 이혼, 사별, 별거 등)	45	10.7
직업	전문직	94	22.3
	판매, 서비스직	126	29.9
	자영업	39	9.2
	사무직	59	14.0
	학생	30	7.0
	무직(취업 준비생 포함)	45	10.7
	기타	29	6.9
가정의 월 평균 수입	3,000위안 미만	64	15.2
	3,000위안 이상~6,000위안 미만	120	28.4
	6,000위안 이상~12,000위안 미만	199	47.2
	12,000위안 이상~24,000위안 미만	25	5.9
	24,000위안 이상	14	3.3
계		422	100.0

2. 연구 대상자의 두피 및 모발 상태와 탈모 실태

1) 두피 및 모발 상태

연구 대상자의 두피 및 모발 상태는 <표 3>과 같다.

두피 유형을 살펴보면, ‘건성 두피’가 108명(2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지성 두피’가 104명(24.6%), ‘정성 두피’가 55명(13.0%), ‘비듬성 두피’가 49명(11.6%), ‘민감성 두피’가 46명(10.9%), ‘복합성 두피’가 38명(9.0%), ‘잘 모르겠다’가 22(5.2%) 순으로 나타났다.

모발 상태에서는 ‘가늘고 약한 모발’이 153명(3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끝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등의 손상 모발’이 107명(25.4%), ‘건조하여 윤기 없는 모발’이 69명(16.2%),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이 61명(14.5%), ‘기름기 많은 모발’이 32명(7.6%)으로 확인되었다.

비듬 상태의 경우, ‘지성 비듬’이 230명(5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건성 비듬’이 143명(33.9%), ‘기타’가 49명(11.6%)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두피 및 모발 상태

(N=422)

두피 및 모발 상태	항목	빈도(N)	퍼센트(%)
두피 유형	정상 두피	55	13.0
	건성 두피	108	25.7
	지성 두피(지루성 포함)	104	24.6
	민감성 두피	46	10.9
	비듬성 두피	49	11.6
	복합성 두피	38	9.0
	잘 모르겠다	22	5.2
모발 상태	끝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등의 손상 모발	107	25.4
	가늘고 약한 모발	153	36.3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	61	14.5
	건조하여 윤기 없는 모발	69	16.2
	기름기 많은 모발	32	7.6
비듬 상태	지성 비듬(끈적끈적한 비듬)	230	54.5
	건성 비듬(마른 비듬)	143	33.9
	기타	49	11.6
계		422	100.0

2) 탈모 실태

연구 대상자의 탈모 실태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탈모 정도에서는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가 155명(36.7%)으로 가장 높았고, ‘약간의 탈모가 있다’가 88명(20.9%),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가 92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이 101명(2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년 미만’이 95명(22.5%), ‘3개월 미만’이 90명(21.3%) 순으로 나타났다.

탈모 형태에서는 ‘C자형’이 175명(41.5%)으로 가장 높았고, ‘O자형’이 92명(21.8%), ‘M+O자형’이 66명(15.6%)으로 나타났다.

평균 탈모량을 분석한 결과, ‘많이 편이다’가 145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적당하다’가 117명(27.7%), ‘아주 적다’가 65명(15.4%)으로 확인되었다.

탈모 유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114명(27.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병적인 요인’이 98명(23.2%), ‘피부질환’이 57명(13.5%) 순으로 분포하였으며 두피, 모발, 탈모 해결 방법에서는 ‘기능성 제품 사용’이 80명(19.0%)으로 가장 높았고, ‘식생활·생활습관 개선’이 77명(18.3%), ‘방치’가 76명(1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탈모 실태

(N=422)

탈모 실태	항목	빈도(N)	퍼센트(%)
탈모 정도	약간의 탈모가 있다	88	20.9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	155	36.7
	탈모가 심한 편이다	92	21.8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87	20.6
탈모 발생 시기	1개월 미만	13	3.1
	3개월 미만	90	21.3
	6개월 미만	101	24.0
	1년 미만	52	12.3
	5년 미만	95	22.5
	5년 이상	71	16.8
	탈모 형태	M자형	61
C자형		175	41.5
O자형		92	21.8
M+O자형		66	15.6
잘 모르겠다		28	6.6
평균 탈모량	아주 적다	64	15.2
	적은 편이다	77	18.2
	적당하다	199	47.2
	많은 편이다	28	6.6
	매우 많다	54	12.8
탈모 유발 원인	유전적 요인	51	12.1
	병적인 요인	98	23.2
	스트레스	114	27.0
	잡은 피머나 염색	45	10.7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장애	39	9.2
	피부질환	57	13.5
	불량한 세척	18	4.3
	방치	76	18.0
두피, 모발, 탈모 해결 방법	식생활·생활습관 개선	77	18.2
	기능성 제품 사용	80	19.0
	미용실에 방문	73	17.3
	병원에 방문	56	13.3
	심리 상담을 받다	39	9.2
	기타	21	5.0
	계	422	100.0

3. 연령에 따른 두피 및 모발 상태와 탈모 실태의 차이

1) 연령에 따른 두피 및 모발 상태

연령에 따른 두피 및 모발 상태는 <표 5>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40대에서 모든 두피유형, 모발상태, 비듬상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령별 두피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대는 ‘민감성 두피’(47.8%)와 ‘비듬성 두피’(49.0%)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0대에서는 ‘복합성 두피’(42.1%)와 ‘잘 모르겠다’(45.5%)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는 정상 두피(23.6%)는 두피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비듬성 두피’(14.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chi^2=14.822$, $p>0.05$).

연령별 모발 상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는 ‘끝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등의 손상 모발’(41.1%)과 ‘가늘고 약한 모발’(41.8%)이 높은 비율이 보였다. 50대는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37.7%)과 ‘건조하여 윤기 없는 모발’(34.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응답자는 ‘기름기 많은 모발’(18.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chi^2=5.445$, $p>0.05$).

연령별 비듬 상태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40대는 ‘지성 비듬’(38.3%)과 ‘건성 비듬’(39.2%)이 높은 비율이 보였다. 50대는 ‘건성 비듬’(37.1%)과 ‘기타(40.8%)’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에서는 ‘지성 비듬’(12.6%)이, 30대에서는 ‘지성 비듬’(19.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chi^2=5.606$, $p>0.05$).

<표 5> 연령에 따른 두피 및 모발 상태

구분	항목	20~29살	30~39살	40~49살	50~59살	계	χ^2	p
		N(%)	N(%)	N(%)	N(%)			
두피 유형	정상 두피	6 10.9	13 23.6	15 27.3	21 38.2	55	14.822	0.674
	건성 두피	12 11.1	20 18.5	40 37.0	36 33.3	108		
	지성 두피	13 12.5	13 12.5	44 42.3	34 32.7	104		
	민감성 두피	3 6.5	8 17.4	22 47.8	13 28.3	46		
	비듬성 두피	7 14.3	6 12.2	24 49.0	12 24.5	49		
	복합성 두피	4 10.5	7 18.4	11 28.9	16 42.1	38		
	잘 모르겠다	2 9.1	3 13.6	7 31.8	10 45.5	22		
	끝이 갈라지거나 뾰여지는 등의 손상 모발	11 10.3	17 15.9	44 41.1	35 32.7	107		
	가늘고 약한 모발	15 9.8	24 15.7	64 41.8	50 32.7	153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	7 11.5	9 14.8	22 36.1	23 37.7	61		
건조하여 윤기 없는 모발	8 11.6	15 21.7	22 31.9	24 34.8	69			
기름기 많은 모발	6 18.8	5 15.6	11 34.4	10 31.3	32			
비듬 상태	지성 비듬	29 12.6	44 19.1	88 38.3	69 30.0	230	5.608	0.469
	건성 비듬	13 9.1	21 14.7	56 39.2	53 37.1	143		
	기타	5 10.2	5 10.2	19 38.8	20 40.8	49		
	계	47 11.1	70 16.6	163 38.6	142 33.6	422		

2) 연령에 따른 탈모증상

연령에 따른 탈모증상은 <표 6>과 같다.

연령대별 탈모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0대에서 ‘약간의 탈모가 있다’(51.1%)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대에서는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32.2%)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chi^2=28.572$, $p<0.01$).

이은정(2024)의 연구에 따르면 MZ시대 전체적으로 ‘탈모가 약간 있음’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에서 발견되는 탈모증상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모 예방 샴푸 및 두피관리 산업 소비자 인사이트 리포트(靑眼情報, 2025)에 따르면, 중국인의 탈모 평균 연령은 약 30세 정도이며, 25~35세는 46.7%가 심각한 탈모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상 점차 젊어지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의 탈모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 예방 샴푸 및 두피관리 제품 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와 상업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대별 탈모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는 ‘1개월 미만’(53.8%), ‘5년 미만’(52.6%)이 탈모 발생률이 높았으며, 50대 응답자는 ‘5년 이상’(56.3%)의 탈모 경험이 절반을 넘었고, 30대는 ‘1년 미만’(32.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4.755$, $p<0.001$).

석서임(2021)의 연구에 따르면 탈모증상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전체적으로 40대 이후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피에 탈모증상이 생긴 기간은 30대 이하에서 ‘1년 이하’가 34.8%로 가장 많았고, 40대, 50대는 ‘5년 이상’이 38.4%, 57.6%로 가장 많았다. 또한 ShiDi et al.(2019)의 중국인 남성형 탈모증 환자 1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 31~50세 탈모 발생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에는 18~30세가 34.6%를 차지했다. 탈모 발생 시기는 ‘1년 이하’가 31.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1년 초과 3년 미만'이 21.1%로 그 뒤를 이었다.

탈모증상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생리적 메커니즘, 환경적 스트레스, 사회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두피관리 및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탈모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 탈모 형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 대부분의 탈모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M자형'(44.3%)과 'M+O자형'(47.0%)이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50대는 'C자형'(36.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통계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208$, $p>0.05$).

연령별 평균 탈모량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40대는 '아주 적다'(56.3%)와 '적은 편이다'(57.1%) 응답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30대에서는 '많은 편이다'가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0.339$, $p<0.001$).

'현대 젊은이들의 탈모 실태 조사 보고서(IiMedia Research, 2022)'에 따르면 18~50세 중 26~30세, 31~35세 응답자가 각각 52.26%, 49.08%로 탈모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매일 탈모량이 50~100개라고 응답한 비율은 32.06%였으며, 50개 미만이 29.1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00개 이상 탈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2%에 그쳐, 본 연구 맥락과 일치하였다.

20~30대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매일 탈모량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를 외모 저하 및 건강 이상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탈모 시장에서 감성적 소비의 주요 소비층이 젊은 세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6> 연령에 따른 탈모증상

구분	항목	20~29살	30~39살	40~49살	50~59살	계 N	x ²	p
		N(%)	N(%)	N(%)	N(%)			
탈모 정도	약간의 탈모가 있다	8 9.1	4 4.5	45 51.1	31 35.2	88	28.572 **	0.001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	18 11.6	23 14.8	59 38.1	55 35.5	155		
	탈모가 심한 편이다	13 14.1	15 16.3	32 34.8	32 34.8	92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8 9.2	28 32.2	27 31.0	24 27.6	87		
	계	47 11.1	70 16.6	163 38.6	142 33.6	422		
탈모 발생 시기	1개월 미만	1 7.7	0 0.0	7 53.8	5 38.5	13	44.755 ***	0.000
	3개월 미만	8 8.9	19 21.1	32 35.6	31 34.4	90		
	6개월 미만	15 14.9	13 12.9	42 41.6	31 30.7	101		
	1년 미만	4 7.7	17 32.7	17 32.7	14 26.9	52		
	5년 미만	10 10.5	14 14.7	50 52.6	21 22.1	95		
	5년 이상	9 12.7	7 9.9	15 21.1	40 56.3	71		
	계	47 11.1	70 16.6	163 38.6	142 33.6	422		
탈모 형태	M자형	6 9.8	10 16.4	27 44.3	18 29.5	61	15.208	0.23
	C자형	14 8.0	37 21.1	60 34.3	64 36.6	175		
	O자형	12 13.0	13 14.1	36 39.1	31 33.7	92		
	M+O자형	8 12.1	7 10.6	31 47.0	20 30.3	66		
	잘 모르겠다	7 25.0	3 10.7	9 32.1	9 32.1	28		
	계	47 11.1	70 16.6	163 38.6	142 33.6	422		
평균 탈모 량	아주 적다	1 1.6	0 0.0	36 56.3	27 42.2	64	80.339 ***	0.000
	적은 편이다	3 3.9	0 0.0	44 57.1	30 39.0	77		
	적당하다	30 15.1	45 22.6	63 31.7	61 30.7	199		
	많은 편이다	6 21.4	10 35.7	1 3.6	11 39.3	28		
	매우 많다	7 13.0	15 27.8	19 35.2	13 24.1	54		
계	47 11.1	70 16.6	163 38.6	142 33.6	422			

p<0.01, *p<0.001

3) 연령에 따른 탈모 원인

연령에 따른 탈모 원인은 <표 7>과 같다.

연령대별 탈모 원인 분석을 통해 40대에서는 ‘스트레스’(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50대에서는 ‘피부 질환’(56.1%)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통계 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1.524, p<0.05$).

김보경(202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60대는 유전적 요인이 탈모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황경옥(2023)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79.2%가 탈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탈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탈모 초기 대응 방법’이 30.2%로 가장 높았고, ‘탈모 원인 이해’는 15.3%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모 불안 극복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 보고서(慧辰, 2018)’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응답자의 72.9%가 스트레스를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선택했으며, 이는 유전적 요인(54.6%)과 병리적 탈모(45.1%) 등의 다른 요인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연령대별로 탈모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유전과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는 반면, 50대에서 일부는 탈모를 단순한 피부 문제로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중한 두 나라의 사회문화, 생활 경험 등에 차이가 있고, 중국 연령대별 남성이 선택한 탈모 원인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관련 건강 교육의 보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탈모 대응 방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는 ‘방치’(46.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는 ‘식·생활습관 개선’(55.8%)을 주된 대응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병원 방문’(33.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8.09, p<0.001$).

‘당대 청년 탈모 현황 조사보고서(南方都市報, 2022)’에서, 중국 18~50세에 대해 조사를 살펴보면, 탈모 대응 방법 중에 가장 많은 응답자는 탈모 예방 제품(49.67%)과 발모 제품(35.69%)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병원 진료, 불규칙한 생활습관 개선 등이 59.2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량한 생활습관의 개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병원 진료(51.19%), 모발 관리(47.76%)로 나타났다. 한편, 김보경(2025)의 연구에서는 30~50대가 주로 홈 케어를 시행하고 있으나, 50대의 경우 54.0%가 두피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맥락과 유사하게, 연령대별 탈모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는 사회 환경, 건강에 대한 인식, 경제적 능력, 외모에 대한 불안 수준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0대의 경우 탈모를 방치하는 경향은 탈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 연령대별의 특성에 맞춤형 탈모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연령에 따른 탈모 원인

구분	항목	20~29살	30~39살	40~49살	50~59살	계 N	x ²	p
		N(%)	N(%)	N(%)	N(%)			
탈모 유발 원인	유전적 요인	10	5	19	17	51	31.524*	0.025
		19.6	9.8	37.3	33.3			
	병적인 요인	14	16	37	31	98		
		14.3	16.3	37.8	31.6			
	스트레스	9	23	54	28	114		
		7.9	20.2	47.4	24.6			
	잡은 퍼머나 염색	5	8	18	14	45		
		11.1	17.8	40.0	31.1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장애	1	8	17	13	39		
		2.6	20.5	43.6	33.3			
	7	7	11	32	57			
	12.3	12.3	19.3	56.1				
	1	3	7	7	18			
	5.6	16.7	38.9	38.9				
탈모 대응 방안	방치	6	17	18	35	76	58.09***	0.000
		7.9	22.4	23.7	46.1			
	식·생활습관 개선	4	8	43	22	77		
		5.2	10.4	55.8	28.6			
	기능성 제품 사용	8	12	28	32	80		
		10.0	15.0	35.0	40.0			
	미용실에 방문	3	13	32	25	73		
		4.1	17.8	43.8	34.2			
	병원에 방문	19	9	17	11	56		
		33.9	16.1	30.4	19.6			
심리 상담을 받다	5	6	17	11	39			
	12.8	15.4	43.6	28.2				
기타	2	5	8	6	21			
	9.5	23.8	38.1	28.6				
계	47	70	163	142	422			
	11.1	16.6	38.6	33.6				

*p<0.05, ***p<0.001

4. 환경 요인의 탈모 영향 순위

다음은 환경 요인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 순위는 다음 <표 8>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1순위로 환경 요인은 ‘스트레스’ 169명(40.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질병’ 72명(17.1%), ‘나이’ 68명(16.1%), ‘과로’ 36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환경 요인에 대해 ‘질병’ 104명(24.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스트레스’ 78명(18.5%), ‘나이’ 54명(12.8%), ‘다이어트’ 54명(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환경 요인에 대해 ‘질병’ 90명(21.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스트레스’ 68명(16.1%), ‘두피질환 (비듬, 염증 등)’ 60명(14.2%), ‘다이어트’ 59명(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환경 요인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

문항정보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나이	68	16.1	54	12.80	52	12.30
스트레스	169	40.0	78	18.5	68	16.1
과로	36	8.5	39	9.2	34	8.1
질병	72	17.1	104	24.6	90	21.3
다이어트	30	7.1	54	12.8	59	14.0
잡은 염색 및 헤어 시술	17	4.0	37	8.8	29	6.9
두피질환 (비듬, 염증 등)	23	5.5	36	8.5	60	14.2
기타	7	1.7	20	4.7	30	7.1
전체	422	100.0	422	100.0	422	100.0

5. 연령에 따른 탈모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연령에 따른 탈모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표 9>와 같다.

연령별 탈모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대에서는 ‘대인 관계 기피’(44.8%)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40대는 ‘우울증 및 무기력증’(45.1%)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30대에서는 ‘입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19.0%)이 각 15.2%, 19.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계 검정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2.342$, $p<0.01$).

‘국민 모발 조사 보고서(IiMedia Research, 2022)’에 따르면, 탈모 또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남성에게 불안한 감정을 유발하며, 그 주요 원인은 ‘노화된 외모에 대한 우려’(62.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패션 추구에 대한 제약’(42.2%) 및 ‘직업 활동에의 부정적 영향’(30.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민 두피 건강 백서(IiMedia Research, 202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발 문제는 개인의 심리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부족’(55%), ‘사회적 불안’(43%), ‘삶의 질 및 행복감 저하’(32%) 등의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맥락과 일치하며, 이에 따라 불안의 심리적 반응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대 사회의 젊은 외모에 대한 추구하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이미지가 사회적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탈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발 자체에 대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9> 연령별 탈모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항목	20~29살	30~39살	40~49살	50~59살	응답 수	χ^2	p
		N(%)	N(%)	N(%)	N(%)	빈도 (N)		
연 령	대인 관계	18	34	75	103	230	32.342**	0.006
	기피	7.8	14.8	32.6	44.8			
	자신감 결여	28	50	100	95	273		
	입사 및	10.3	18.3	36.6	34.8			
	승진에 불이익	32	40	78	61	211		
	결혼에 비호감	15.2	19.0	37.0	28.9			
	요소	23	32	85	50	190		
	우울증 및	12.1	16.8	44.7	26.3			
	무기력증	26	37	106	66	235		
	기타	11.1	15.7	45.1	28.1			
		14	17	45	51	127		
		11.0	13.4	35.4	40.2			
		141	210	489	426	1266		
계	11.1	16.6	38.6	33.6				

** $p < 0.01$

6.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두피상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두피상태는 10개의 문항 중 10개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두피상태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요인 1은 ‘두피에 자극을 쉽게 받는다’, ‘두피가 쉽게 붉어진다’, ‘두피가 건조하다’, ‘두피에 가려움을 느낀다’, ‘두피에 염증이 있다’, ‘두피에 상처가 많다’, ‘두피에 유분이 많고 냄새가 난다’, ‘두피에 피지와 트러블이 있다’, ‘두피에 비듬이 있다’,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피상태’로 명명하였다.

이 1개의 요인적재 *KMO*값이 .967로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3168.32(df=45, p=.000)$ 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는 0.95로 나타났다.

<표 10> 두피상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신뢰도
두 피 상 태	1. 두피에 자극을 쉽게 받는다	0.95
	2. 두피가 쉽게 붉어진다	
	3. 두피가 건조하다	
	4. 두피에 가려움을 느낀다	
	5. 두피에 염증이 있다	
	6. 두피에 상처가 많다	
	7. 두피에 유분이 많고 냄새가 난다	
	8. 두피에 피지와 트러블이 있다	
	9. 두피에 비듬이 있다	
	10.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	
<i>KMO</i> = .967, Bartlett's test $\chi^2=3168.32 (df=45, p=.000)$.		

2) 두피관리행동의 타당도 및 신뢰도

두피관리행동은 12개의 문항 중 삭제 문항 없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두피관리행동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요인 1(54.44%)은 ‘나는 두피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피 건강을 위해 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피 건강을 위해 폼, 염색, 왁스, 스프레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피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두피를 관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두피 건강을 위해 두피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피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2(10.51%)는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가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가 두피의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할 때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가 탈모 방지/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피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8.51%)은 ‘나는 전문 장소에서 두피관리는 전문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피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관리를 받고 싶다’, ‘나는 두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피전문관리’로 명명하였다.

이 3개의 요인에 대한 파악한 결과 *KMO*값은 .931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3131.89(df=66, p=.000)$ 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8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1> 두피관리행동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두피관리 행동		
	두피 관리	두피 인식	두피 전문관리
11. 나는 두피의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0.79	0.23	0.07
10. 나는 두피의 건강을 위해 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78	0.21	0.30
8. 나는 두피의 건강을 위해 폼, 염색, 왁스, 스프레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0.75	0.26	0.30
9. 나는 두피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두피를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0.73	0.19	0.26
12. 나는 두피의 건강을 위해 두피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0.71	0.27	0.23
6.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가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22	0.81	0.26
4.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가 모발과 두피의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29	0.80	0.21
7.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할 때 스트레스가 감소 된다고 생각한다.	0.28	0.78	0.25
5. 나는 지속적인 두피의 관리가 탈모 방지/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20	0.75	0.22
3. 나는 전문 장소에서 두피관리는 전문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24	0.27	0.83
2. 두피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관리를 받고 싶다.	0.28	0.27	0.81
1. 나는 두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32	0.30	0.80
고유값	6.53	1.26	1.02
분산설명(%)	54.44	10.51	8.51
누적설명(%)	54.44	64.95	73.46
신뢰도	0.88	0.88	0.89

KMO= .931, Bartlett's test $\chi^2=3131.89$ ($df=66$, $p=.000$).

3)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헤어스타일 관심도는 8개의 문항 중 삭제 문항 없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요인 1(59.62%)은 ‘나는 풍성한 모발을 위해 모발이식을 받고 싶다’, ‘나는 풍성한 모발이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유지할 때 자신감을 생긴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표현’로 명명하였다.

요인 2(15.38%)는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외출할 때 머리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좋은 모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쓴다’, ‘나는 모발 상태는 첫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시도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지각’으로 명명하였다.

이 2개의 요인에 대한 파악한 결과 *KMO*값은 0.902로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2078.58(df=28, p=.000)$ 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9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2>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헤어스타일 관심도	
		자기 표현	타인 지각
	4. 나는 풍성한 모발을 위해 모발이식을 받고 싶다.	0.84	0.28
자 기 표 현	1. 나는 풍성한 모발이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0.83	0.28
	3.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0.82	0.20
	2. 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유지할 때 자신감을 생긴다고 생각한다.	0.81	0.33
타 인 지 각	8.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외출할 때 머리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0.31	0.84
	5.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좋은 모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쓴다.	0.29	0.83
	7. 나는 모발 상태는 첫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29	0.83
	6.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시도한다.	0.19	0.79
	고유값	4.77	1.23
	분산설명(%)	59.62	15.38
	누적설명(%)	59.62	75.00
	신뢰도	0.89	0.89
<i>KMO</i> =.902, Bartlett's test $\chi^2=2078.58(df=28, p=.000)$.			

7. 연령에 따라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1) 연령에 따른 두피상태의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두피상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상태($F=606.901$, $p<0.001$) 요인에서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Ren YiFei(2020)의 연구는 30대 인구의 두피 손상 정도가 이미 20대보다 높다고 확인되었다. 한편 姚麗(202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약 90%가 30세 이상이었으며, 이 중 62.4%가 자신의 두피와 모발이 ‘준건강 상태(亞健康)’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유사하며, 연령 증가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두피 노화 및 손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에 항노화 기능을 접목시키는 것이 하나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13> 연령에 따른 두피상태의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	두피상태		
		평균	F (p)	사후분석
연령	20~29살 ^a	2.41	606.901*** (0.000)	a,b<c,d
	30~39살 ^b	2.15		
	40~49살 ^c	4.24		
	50~59살 ^d	4.16		

*** $p<0.001$

2) 연령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두피관리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전문관리($F=164.070$, $p<0.001$), 두피인식($F=146.804$, $p<0.001$), 두피관리($F=157.746$, $p<0.001$), 두피관리행동($F=340.069$, $p<0.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이정화(202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두피관리행동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60대($M=4.15$)의 전체적인 두피 및 모발 관리 행동은 식습관 관리, 제품 관리, 전문 관리 등 하위 요인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50대($M=3.69$), 30대($M=3.68$)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강화되며, 외모보다는 건강 유지 차원에서 두피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성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두피 및 모발 건강 관리 시장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별 맞춤형 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자기표현($F=163.348$, $p<0.001$), 타인지각($F=171.213$, $p<0.001$), 헤어스타일 관심도($F=303.567$, $p<0.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송인영(2020)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자기 표현’과 ‘타인 표현’이라는 두 가지 외모 관심 차원에서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40대 이상 남성의 자기 표현 관심도는 30대보다 높았으며, 20대 남성은 타인

표현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중국 탈모 백발 관리 보고서(iiMedia Research, 2024)’에서도 18~30세 남성은 직장에 도움이 되도록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30세 이상 남성은 이미지 관리를 통해 사업 및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 표현, 타인 인식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40~50대 집단이 20대 및 30대보다 높았다. 탈모 문제로 인해 중년 남성의 사회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중년층 전반적으로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4> 연령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	두피전문관리			두피인식			두피관리			두피관리 행동		
	평균	$F(p)$	사후분석	평균	$F(p)$	사후분석	평균	$F(p)$	사후분석	평균	$F(p)$	사후분석
연령	2.42			2.42			2.36			2.39		
20~29살 ^a	2.42			2.42			2.12			2.16		
30~39살 ^b	2.13	164.070*** (0.000)	a,b<c,d	2.24	146.804*** (0.000)	a,b<c,d	3.79	157.746*** (0.000)	a,b<c,d	3.94	340.069*** (0.000)	a,b<c,d
40~49살 ^c	4.14			3.97			3.76			3.88		
50~59살 ^d	4.09			3.87								

*** $p < 0.001$

<표 15>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	자기표현			타인지각			헤어스타일 관심도		
	평균	$F(p)$	사후분석	평균	$F(p)$	사후분석	평균	$F(p)$	사후분석
연령	2.35			2.36			2.36		
20~29살 ^a	2.35			2.36			2.36		
30~39살 ^b	2.11	163.348*** (0.000)	a,b<c,d	2.12	171.213*** (0.000)	a,b<c,d	2.11	303.567*** (0.000)	a,b<c,d
40~49살 ^c	3.94			3.99			3.96		
50~59살 ^d	3.86			3.85			3.86		

*** $p < 0.001$

8.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1)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상태의 차이분석

탈모증상에 따른 두피상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탈모 정도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상태($F=6.424$, $p<0.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탈모량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상태($F=23.860$, $p<0.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인사이트 보고서(靑眼情報, 2025)’에 따르면, 탈모 고민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탈모 방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모 정도가 약할수록 두피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탈모 관리는 두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추측된다.

탈모 정도, 평균 탈모량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발생 시기, 탈모 형태, 탈모 유발 원인에 따라 구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상태의 차이분석

탈모증상의 변인		두피상태		
		평균	F(p)	사후분석
탈모 정도	약간의 탈모가 있다 ^a	4.01	6.424*** (0.000)	b,c,d<a d<b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 ^b	3.68		
	탈모가 심한 편이다 ^c	3.60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d	3.38		
탈모 발생 시기	1개월 미만	4.11	2.007 (0.077)	
	3개월 미만	3.59		
	6개월 미만	3.66		
	1년 미만	3.41		
	5년 미만	3.70		
	5년 이상	3.86		
탈모 형태	M자형	3.80	0.859 (0.489)	
	C자형	3.63		
	O자형	3.61		
	M +O자형	3.79		
	잘 모르겠다	3.50		
평균 탈모 량	아주 적다 ^a	4.24	23.860*** (0.000)	a,b>c,d,e c,e>d
	적은 편이다 ^b	4.24		
	적당하다 ^c	3.43		
	많은 편이다 ^d	2.97		
	매우 많다 ^e	3.41		
탈모 유발 원인	유전적 요인	3.54	0.372 (0.897)	
	병적인 요인	3.62		
	스트레스	3.66		
	жат은 피머나 염색	3.69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장애	3.74		
	피부질환	3.79		
	불량한 세척	3.75		

***p<0.001

2)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분석

탈모증상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탈모 정도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전문관리($F=3.718, p<0.05$), 두피관리($F=3.718, p<0.05$), 두피관리행동($F=3.635, p<0.05$)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발생 시기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전문관리($F=3.328, p<0.05$), 두피관리($F=3.328, p<0.05$), 두피관리행동($F=2.771, p<0.05$)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탈모량에 따른 구분에서는 두피전문관리($F=14.436, p<0.001$), 두피인식($F=13.964, p<0.001$), 두피관리($F=17.147, p<0.001$), 두피관리행동($F=11.710, p<0.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윤희(2022)의 연구에 따라서 탈모 정도가 높을수록 두피와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잦은 염색 행위, 전용 샴푸 제품 선호, 모발 문제에 대한 민감도 증가 등으로 표현되었다. 탈모가 심해질수록 개인들은 두피관리 중요성을 더 인지하게 되며 전문 기관 상담을 더 원하고 관리자의 전문 기술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탈모 정도가 낮은 그룹에서 오히려 두피관리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관찰되었으므로, 탈모 초기나 증상이 경미한 단계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 인식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탈모 정도, 탈모 발생 시기, 평균 탈모량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형태, 탈모 유발 원인에 따라 구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탈모증상에 따라 두피관리행동의 차이분석

탈모증상의 변인		두피관리행동											
		두피전문관리			두피인식			두피관리			두피관리행동		
		평균	F(p)	사후 분석	평균	F(p)	사후 분석	평균	F(p)	사후 분석	평균	F(p)	사후 분석
탈모 정도	약간의 탈모가 있다 ^a	3.95			3.70			3.50			3.68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 ^b	3.54	3.718*	b,c,d<a	3.48	2.274	a>d	3.42	3.150*	a,b>d	3.47	3.635*	a>b,c
	탈모가 심한 편이다 ^c	3.57	(0.012)		3.43	(0.079)		3.32	(0.025)		3.42	(0.013)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d	3.41			3.31			3.09			3.24		
탈모 발생 시기	1개월 미만	4.15			3.63			3.53			3.66		
	3개월 미만	3.43			3.41			3.39			3.46		
	6개월 미만	3.63	3.328*	a,b,d,f>c a,f>e	3.38	1.615	-	3.17	2.235*	a>c c,d,e<f	3.25	2.771*	-
	1년 미만	3.21	(0.006)		3.50	(0.155)		3.25	(0.050)		3.43	(0.018)	
	5년 미만	3.67			3.38			3.28			3.35		
5년 이상	3.90		4.08			3.94			4.04				
탈모 형태	M자형	3.86			3.59			3.48			3.61		
	C자형	3.52			3.51			3.33			3.44		
	O자형	3.51	1.765	-	3.35	1.476	-	3.26	0.476	-	3.35	1.177	-
	M +O자형	3.80	(0.135)		3.59	(0.209)		3.37	(0.753)		3.55	(0.320)	
잘 모르겠다	3.46		3.17			3.34			3.31				
평균 탈모 량	아주 적다 ^a	4.27			3.99			3.82			3.99		
	적은 편이다 ^b	4.04			3.94			3.85			3.93		
	적당하다 ^c	3.38	14.436***	a,b>c,d,e	3.29	13.964***	ab>cde	3.12	17.147***	ab>cde d<a,b,c,e	3.24	11.710***	ab>c,de d<a,b,c,e
	많은 편이다 ^d	3.00	(0.000)		3.05	(0.000)		2.75	(0.000)		2.91	(0.000)	
매우 많다 ^e	3.33		3.15			3.21			3.22				

	유전적 요인	3.54		3.49		3.32		3.43
	병적인 요인	3.46		3.41		3.39		3.41
탈모	스트레스	3.56		3.45		3.26		3.40
유발	잡은 퍼머나 염색	3.61	0.918	3.59	0.441	3.38	0.389	3.51
원인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3.77	(0.481)	3.49	(0.851)	3.30	(0.886)	3.48
	영양장애							
	피부질환	3.81		3.62		3.41		3.58
	불량한 세척	3.87		3.33		3.54		3.56

* $p < 0.05$, *** $p < 0.001$

3) 탈모증상에 따라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탈모증상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탈모 정도에 따른 구분에서는 자기표현($F=5.014$, $p<0.01$), 타인지각($F=4.215$, $p<0.01$), 헤어스타일 관심도($F=5.793$, $p<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탈모량에 따른 구분에서는 자기표현($F=18.804$, $p<0.001$), 타인지각($F=18.981$, $p<0.001$), 헤어스타일 관심도($F=21.245$, $p<0.001$)요인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CR(慧辰, 2018)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는 현재 혹은 미래의 배우자가 탈모일 경우 이를 신경 쓴다고 응답했으며, 91.7%는 남성의 모발 밀도와 매력 간에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90%는 탈모나 대머리가 첫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탈모 정도가 낮을수록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은 사회적 외모 기준과 이미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탈모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외모 관리에 나서며, 특히 헤어스타일과 전체적인 외모 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모 정도, 평균 탈모량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발생 시기, 탈모 형태, 탈모 유발 원인에 따라 구분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8> 탈모증상에 따라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차이분석

탈모증상의 변인		헤어스타일 관심도								
		자기표현			타인지각			헤어스타일 관심도		
		평균	<i>F(p)</i>	사후분석	평균	<i>F(p)</i>	사후분석	평균	<i>F(p)</i>	사후분석
탈모 정도	약간의 탈모가 있다 ^a	3.76			3.76			3.76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 ^b	3.45	5.014** (0.002)	a>b,c,d	3.44	4.215** (0.006)	a>b,c,d	3.45	5.793** (0.001)	a>b,c,d
	탈모가 심한 편이다 ^c	3.35			3.43			3.39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d	3.18			3.21			3.20		
1개월 미만	3.73				3.61					
탈모 발생 시기	3개월 미만	3.45			3.58			3.49		
	6개월 미만	3.48	0.889 (0.488)		3.20	1.703 (0.133)		3.20	1.282 (0.270)	a,b,c,d,e<f c,e<f
	1년 미만	3.20			3.50			3.49		
	5년 미만	3.41			3.30			3.38		
	5년 이상	3.52			3.54			3.63		
M자형	3.52				3.48					
탈모 형태	C자형	3.42	0.478 (0.752)		3.43	0.367 (0.832)		3.43	0.377 (0.825)	
	O자형	3.44			3.40			3.42		
	M +O자형	3.49			3.59			3.54		
	잘 모르겠다	3.21			3.44			3.33		
평균 탈모 량	아주 적다 ^a	3.92			3.99			3.96		
	적은 편이다 ^b	3.82	18.804*** (0.000)	a,b>c,d,e d<a,b,c,e	4.01	18.981*** (0.000)	a,b>c,d,e d<a,b,c,e	3.92	21.245*** (0.000)	a,b>c,d,e d<a,b,c
	적당하다 ^c	3.25			3.27			3.26		
	많은 편이다 ^d	2.78			2.80			2.79		
	매우 많다 ^e	3.37			3.07			3.22		

	유전적 요인	3.52		3.30		3.41	
	병적인 요인	3.36		3.33		3.34	
탈모	스트레스	3.39		3.47		3.43	
유발	잦은 피머나 염색	3.39	0.360 (0.904)	3.58	0.801 (0.569)	3.49	0.486 (0.819)
원인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장애	3.51		3.53		3.52	
	피부질환	3.53		3.59		3.56	
	불량한 세척	3.60		3.60		3.60	

** $p < 0.01$, *** $p < 0.001$

9.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표 19>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시행한 결과로 탈모증상 중 탈모증상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두피상태 중 두피상태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두피관리행동 중 두피전문관리, 두피인식 및 두피관리 변수는 모든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헤어스타일 관심도 중 자기표현, 타인지각 변수는 모든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는 모든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19>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 간의 상관관계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전문 관리	두피인식	두피관리	두피관리 행동	자기표현	타인지각	헤어스타일 관심도
탈모증상	1								
두피상태	-.430**	1							
두피전문관 리	-.338**	.778**	1						
두피인식	-.333**	.768**	.615**	1					
두피관리	-.333**	.770**	.621**	.601**	1				
두피관리행 동	-.388**	.895**	.841**	.854**	.885**	1			
자기표현	-.320**	.743**	.591**	.581**	.582**	.677**	1		
타인지각	-.392**	.784**	.639**	.620**	.612**	.721**	.591**	1	
헤어스타일 관심도	-.399**	.856**	.689**	.673**	.669**	.784**	.892**	.892**	1

** $p < 0.01$

10.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미치는 영향

1)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탈모증상이 두피상태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8.5%를 보이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95.378, p<0.001$). 구체적으로 두피상태($\beta=-0.43, p<0.001$)의 순으로 두피상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상이 두피관리행동에 대한 구체적으로 두피 전문 관리($\beta=-0.338, p<0.001$), 두피 인식($\beta=-0.333, p<0.001$), 두피관리($\beta=-0.333, p<0.001$)의 순으로 두피관리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상이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기표현($\beta=-0.32, p<0.001$), 타인지각($\beta=-0.392, p<0.001$)의 순으로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탈모·백발 관리 산업 인사이트 보고서(LiMedia Research, 2024)’에 따르면, 직장 내 이미지와 업무 스트레스라는 이중 요인으로 인해 탈모 인구는 외모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두피관리와 헤어스타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에 갓 진입한 직장인들은 ‘승진과 연봉 상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헤어스타일과 두피관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모가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모 인구가 외모 관리를 원하면서도, 탈모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나 생리적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두피관리나 헤어스타일 관리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0>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R ²	adj.R ² (df)	F
두피상태	(상수)	5.218	0.164		31.743***				
	탈모증상	-0.59	0.06	-0.43	-9.766***	0	0.185	0.183	95.378***
두피관리	(상수)	5.034	0.202		24.982***				
	탈모증상	-0.544	0.074	-0.338	-7.35***	0	0.114	0.112	54.027***
두피인식	(상수)	4.73	0.179		26.468***				
	탈모증상	-0.475	0.066	-0.333	-7.245***	0	0.111	0.109	52.495***
두피관리행동	(상수)	4.531	0.17		26.671***				
	탈모증상	-0.451	0.062	-0.333	-7.229***	0	0.111	0.109	52.264***
헤어스타일	(상수)	4.668	0.184		25.332***				
	탈모증상	-0.468	0.068	-0.32	-0.32***	0	0.102	0.1	47.848***
관심도	(상수)	4.963	0.178		27.807***				
	탈모증상	-0.573	0.066	-0.392	-0.392***	0	0.154	0.152	76.449***

*** p<0.001

2)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관리행동,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관리행동 및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관리행동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61.70%를 보이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37.449$, $p<0.001$). 구체적으로 타인지각($\beta=.494$, $p<0.001$), 자기표현($\beta=.385$, $p<0.001$)의 순으로 두피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중국 모발 건강 서비스 업계 연구(LiMedia Research, 2024)’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소비자가 모발 시장의 중요한 힘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남성들의 모발 미학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이 탈모의 주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도 ‘타인 지각’과 ‘자기 표현’이 두피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는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감정을 더 의식할수록 두피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상태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73.50%를 보이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81.420$, $p<0.001$). 구체적으로 자기표현($\beta=.530$, $p<0.001$), 타인지각($\beta=.430$, $p<0.001$)의 순으로 두피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시셴(2023)은 모발 관심도와 두피 인식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모발 관리와 헤어스타일 관심도에서 관심도가 높을수록 두피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 관리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모발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상태에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결과는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자기표현, 타인지각이 높아질수록,

두피관리 행동, 두피상태 및 탈모증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1> 헤어스타일 관심도가 두피관리행동,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p</i>	<i>R</i> ²	<i>adj-R</i> ² (<i>df</i>)	<i>F</i>
	(상수)	0.875	0.103		8.497***	0			
두피 관리 행동	자기표현	0.328	0.032	0.385	10.278***	0	0.617	0.615 (2)	337.449***
	타인지각	0.421	0.032	0.494	13.163***	0			
	(상수)	0.566	0.094		5.998***	0			
두피 상태	자기표현	0.497	0.029	0.53	16.993***	0	0.735	0.734 (2)	581.42***
	타인지각	0.403	0.029	0.43	13.794***	0			

*** $p < 0.001$

4) 두피관리행동이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

두피관리행동이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두피관리행동이 두피상태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80.30%를 보이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69.194$, $p<0.001$). 구체적으로 두피전문관리($\beta=.353$, $p<0.001$), 두피인식($\beta=.344$, $p<0.001$), 두피관리($\beta=.344$, $p<0.001$)의 순으로 두피상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민 두피관리 소비 백서(CBNDData, 2021)’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두피관리 소비의 증가 속도는 일반적인 샴푸·헤어케어 소비보다 약 1.7배 더 높았으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두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두피관리는 단순한 세정 단계를 넘어 노화 방지, 피지 조절 등 다기능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문 관리 서비스와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결과는 두피관리행동의 두피전문관리, 두피인식, 두피관리가 높아질수록, 두피상태 및 탈모증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2> 두피관리행동이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p</i>	<i>R</i> ²	<i>adj.R</i> ² (<i>df</i>)	<i>F</i>
	(상수)	0.274	0.085		3.209**	0.001			
두피 상태	두피전문 관리	0.300	0.026	0.353	11.766***	0	0.803	0.802 (3)	569.194***
	두피인식	0.330	0.028	0.344	11.687***	0			
	두피관리	0.347	0.030	0.344	11.610***	0			

** $p < 0.01$, *** $p < 0.001$

5) 두피상태가 탈모증상에 미치는 영향

두피상태가 탈모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두피상태가 탈모증상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8.50%를 보이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95.378, p<0.001$). 두피상태($\beta=-0.430, p<0.001$)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윤희(2022)는 두피상태와 모발 증상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두피에 가려움, 염증, 과도한 유분 분비, 비듬 증가, 열감 등의 문제가 나타날 때, 개인은 모발 가늘어짐, 처짐, 탈모 증가 등의 현상을 더 쉽게 보였다. 특히 두피상태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 모발이 더 일찍 가늘어지고 일상적인 탈모 현상이 더 뚜렷했으며, 모발 개수 감소를 더 자주 인지했다. 이로써 두피 문제가 심각할수록 모발 품질이 더 약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과는 두피상태가 높아질수록, 탈모증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3> 두피상태가 탈모증상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p</i>	<i>R</i> ²	<i>adj. R</i> ² (<i>df</i>)	<i>F</i>
	(상수)	3.781	0.122		30.996***	0			
탈모 증상	두피상태	-0.314	0.032	-0.43	-9.766***	0	0.185	0.183	95.378***

*** $p<0.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국 2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증상과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그리고 헤어스타일 관심도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령대별 특성과 인식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탈모와 외모 관리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구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40~49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 가장 많았고,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6,000위안 이상~12,000위안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두피 및 모발 상태와 탈모 실태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두피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모발은 가늘고 약하거나 끝이 손상된 상태가 많았다. 탈모는 다소 진행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발생 시기는 6개월 미만과 5년 미만이 주를 이뤘다. 탈모 형태는 C자형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병적 요인이 지목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탈모가 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는 스트레스를, 50대는 피부 질환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대응 방식에서는 20대는 병원 방문, 40대는 생활습관 개선, 50대는 방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연령에 따라 40대와 50대는 20대와 30대보다 두피상태가 더 나쁜

게 나타났으며, 두피전문관리와 두피인식, 두피관리행동도 연령이 높을수록 활발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에 대한 자기표현과 타인지각 관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탈모증상이 심하거나 탈모량이 많을수록 두피상태가 더 나쁘고, 두피관리행동과 헤어스타일 관심도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탈모 형태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탈모증상은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면,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두피관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피상태는 다시 탈모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순환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두피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인식, 심리 상태 등 다차원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 현상임이 확인된다. 더불어 연령대에 따라 탈모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 관리 행동의 방식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보다 정교하고 개인화된 탈모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이상의 결론은 탈모 및 두피 건강 관리 산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로서, 향후 맞춤형 제품 개발, 연령대별 상담 프로그램, 심리적 지원 모델 수립 등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생리적 지표, 사회심리학적 요인 등과 연계한 학제적 분석을 통해 탈모와 외모 인식, 행동 심리 간의 보다 정교한 인과 구조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남성 탈모 관리 산업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20~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탈모증상,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헤어스타일 관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뷰티 산업 및 건강 관리 전략 수립에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구 표본이 40대 남성 응답자에 편중되어 있어, 연령대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서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표본 편향으로 인해 연령대 간 비교의 통계적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자료 수집 방식이 온라인 설문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자기보고 편향이나 인식 오류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두피상태 및 탈모증상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 진단 결과와 생리적 데이터를 병행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중국의 탈모 관련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덧붙일 수 있다.

첫째, 연령대에 따라 탈모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세대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20대는 병원 치료 및 전문 진단 중심의 대응, 40대는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대응, 50대는 탈모 문제에 대한 방임 또는 수용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각 세대의 관심사, 미디어 소비 특성, 행동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마케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을 통해 탈모를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연관된 건

강 이슈로 전환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는 두피상태 및 탈모증상 경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일수록 두피 건강에 대한 관리 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탈모 관리 프로그램에는 헤어스타일 디자인,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브랜딩 요소를 통합하여, 남성의 자기표현 욕구 충족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형 통합 관리 서비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두피관리행동이 두피상태 개선과 탈모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교육 콘텐츠와 제품 정보 제공, 전문가 상담 채널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한 참여 유도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곽인실 (2018). 복합운동과 두피케어가 탈모 남성의 호르몬 및 PGD2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1), pp. 25-35.
- 김가경 (2023). 소비자가 인지한 두피와 모발 상태에 따른 헤어관리 제품의 구매의도 연구,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2.
- 김남희 (2009). 초기탈모환자들의 탈모증상 완화를 위한 행동유형 분석,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김미숙 (2024).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성 탈모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관리행동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 8-11.
- 김보경 (2025). 중년남성들의 두피·탈모에 대한 인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5, 67-80.
- 김여운 (2014). 탈모자의 두피 및 탈모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김윤영, 김희숙 (2023). 20-40대 남성의 탈모 상태가 탈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17(6), pp. 77-94.
- 김은아 (2011). 두피 모낭층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
- 김주섭, 김찬수, 임대진, 최은정, 장현희, 신지은(2013). 두피모발관리학, 서울: 구민사, p. 36.
- 박민선, 김혜지, 임은진 (2020). 대학생의 외모관심도와 남성메이크업행동 수용과의 상관관계, *대한미용학회지*, 16(1) pp. 89-99.
- 박소연 (2023). 아로마를 이용한 두피스케일링이 모발과 두피상태에 미치는 영

- 향, 창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1.
- 박윤영 (2019). *두피모발관리인식과 계획행동이 헤드스파테라피의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
- 박지은 (2021) *사회문화적 압력과 건강신념이 두피·모발 관리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6-7.
- 박지혜 (2016). *두피(탈모, 모발)관리 서비스 이용 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0.
- 박혜연 (2016). *성인여성의 외모성공지향과 헤어스타일 관심도 및 모발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2.
- 배귀자 (2024). *아로마 두피마사지를 병행한 탈모관리프로그램이 모발 및 두피 상태에 미치는 영향*, 창신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석서임 (2021). *탈모 유발요인에 따른 두피 탈모개선 및 관리행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11, 13-16, 36-37.
- 손유미 (2024). *탈모유형에 따른 여성용 부분 가발 디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송인영 (2020). *남성들의 외모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이 두피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5.
- 신수정 (2023). *두피토닉과 미녹시딜 홈 케어가 탈모두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심옥윤 (2023). *에센셜오일 적용이 심리적건강에 미치는 영향 두피모발건강을 매개효과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9-21.
- 오은경 (2023).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가치관이 외모관심도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2-57.
- 왕시첸 (2023). *중국 대학생의 모발관심,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가 두피·모발관*

- 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 37-40.
- 우진아 (2017). *두피 및 피부 특징이 남성탈모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
- 이백하 (2024). *두피·모발 지식수준 및 관리인식이 헤드스파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
- 이서희 (2020). *건강신념모델에 기초한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이은정 (2024). *MZ세대의 탈모가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38.
- 이정은 (2021).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외모관심도 및 화장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이정화 (2023). *성인의 헤어관심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두피·모발관리행동의 매개효과*,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 이진주 (2022). *SNS 헤어케어 광고속성이 구매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외모관심도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효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8-22.
- 이혜경 (2021). *남성외모관리에 따른 탈모유형별 부분가발제작*,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2.
- 임은진, 김은희, 송다해, 김은주, 하성이 (2016). *두피·모발관리학*, 경기도: 메디시언, pp. 118-119.
- 장민 (2018). *한·중 여대생의 뷰티관심도가 두피·모발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장지연 (2012). *전남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두피·모발관리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東新大學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10.

- 장지연 (2013). 대학생들의 두피,모발관리 인식과 탈모자각증상에 따른 상관관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pp. 485-497.
- 전윤희 (2022). 탈모인과 비탈모인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정도, 생활 습관, 두피모발 관리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 군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7-30.
- 정기쁨 (2017). 두피관리가 중년 탈모 남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 조성일 (2015). 두피생리학, 서울: 현문사, pp. 139-140.
- 주민경 (2018). 남자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9.
- 지민영 (2012). 청소년기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정도가 두피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 최에스더, 김순희, 유유정, 이근광, 정지영, 정현숙, 최정명, 서원숙 (2014). (최신) 모발과학, 경기도: 수문사(Soomoonsa), pp. 131-135.
- 최은영 (2024). *Prioritizing the Susceptibility Genes for Prognosis of Male-pattern Baldness with Transcriptome-wide Association Study*,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
- 한단 (2020). 중국 탈모시장에 대한 마케팅전략 조사분석 보고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한효주 (2019). 20~40대 여성의 헤어스타일 인식도와 선호도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8.
- 홍하나 (2016). 미세먼지에 의한 모발 및 두피 손상 인식과 관리 태도에 관한 만족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 황경옥 (2023). 탈모요인에 따른 조기대응 인식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8, 54-57.

Yan NanNan (2025). *The Influence of Chinese Male Appearance Interest and Appearance Management Motivation on Continuous Scalp and Hair Care: Moderating Effect of Lifestyle*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p. 1-2.

Ren Yifei (2021). *중국 20-40두피 모발 관련에 따른 인식조사 중국 남부지역 성인 대상*,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

국외 문헌

Chen H, Liu C, Cui S, xia Y, Zhang K, Cheng H, Peng J, Yu x, Li L, Yu H, Zhang J, Zheng JS, Zhang B. (2025). Intermittent fasting triggers interorgan communication to suppress hair follicle regeneration, *Cell*, 188(1), pp. 157-174.

HAMILTON JB. (1951). Patterned loss of hair in man; types and incidence. *Ann N Y Acad Sci*, 53(3), pp. 708-736.

He Y, Qi J, Wu Z, Zhang J and Zhang G (2025). Significant efficacy of tofacitinib from China in the treatment of alopecia areata: a case report, *Front, Immunol*, 16(-), 1553904.

Li Y, Huang H, Liang B, Xiao F-L, Zhou F-S, Zheng X-D, Yang S and Zhang X-J (2024). Association study reveals a susceptibility locus with male pattern baldness in the Han Chinese population, *Front, Genet*, 15(-), 1438375.

Li Xiangqian, Liu Huixin, Ren Wenhui, Zhu Qijiong, Yin Peng, Wang Lijun, Zhang Jianzhong, Qi Jinlei, Zhou Cheng (2025). Burden of

- alopecia areata in China, 1990 - 2021: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21. *Chinese Medical Journal* 138(3), pp. 318-324.
- Sadasivam IP, Sambandam R, Kaliyaperumal D, Dileep JE. (2024). Androgenetic Alopecia in Men: An Update On Genetics. *Indian J Dermatol.*, 69(3), p. 282.
- Wang TL, Zhou C, Shen YW, Wang xY, Ding xL, Tian S, Liu Y, Peng GH, xue SQ, Zhou JE, Wang RL, Meng xM, Pei GD, Bai YH, Liu Q, Li H, Zhang JZ (2010). Prevalence of androgenetic alopecia in China: a community-based study in six cities. *Br J Dermatol*, 162(4), pp. 843-847.
- Wenzi Liang, Yinglin Zhao, Bozhi Cai, Yuxin Huang, xiuwen Chen, Na Ni, Yingshan Wang, Zhaoping Lin, Changmin Lin, Keng Huang (2024). Psychological stress induces hair regenerative disorders through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mediated autophagy inhibition,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699(-), 149564.
- Zhang B, Ma S, Rachmin I, He M, Baral P, Choi S, Gonçalves WA, Shwartz Y, Fast EM, Su Y, Zon LI, Regev A, Buenrostro JD, Cunha TM, Chiu IM, Fisher DE, Hsu YC (2020). Hyperactivation of sympathetic nerves drives depletion of melanocyte stem cells, *Nature*, 577(7792), pp. 676-681.
- 曾万祥, 張穎 (2019). 洗護產品市場8大消費趨勢和4大研發新動向. *中國化妝品*, 2019(08), pp. 58-63.
- 李國, 武江民 (2021). 消費領域“重女輕男”現象漸被打破“他經濟”成風決策探索. *I(-)*, pp. 32-33.
- 劉詩迪, 吳曉玲, 楊盛波 (2019). 雄激素性脫發患者的疾病認知對生活質量和焦慮

- 抑郁的影響, *心理學進展*, Vol. (8), pp. 1535-1548.
- 于瑤, 米勇 (2022). 慢性疲勞綜合征的研究及治療進展, *臨床醫學進展*, Vol. (12), pp. 10980-10986.
- 姚麗 (2020). 《中國化妝品》雜誌社執行社長 程偉:國人頭發健康問題嚴峻, 洗護發市場潛力深遠. *中國化妝品*, -(7), pp. 71-72.

기타자료

2022年國民頭發調研報告 (2023).

<https://zhuanlan.zhihu.com/p/603876744> (검색일자: 2025. 06. 09)

CBNDATA 2021國民頭皮護理消費白皮書 (2021).

https://pdf.dfcfw.com/pdf/H3_AP202104191486293858_1.pdf (검색일자: 2025. 06. 14)

CBNDATA 2023國民頭皮健康白皮書 (2023).

https://www.douban.com/note/852995822/?_i=96158484qscMYd,96178874qscMYd (검색일자: 2025. 06. 09)

HCR慧辰咨詢 打敗“脫發焦慮症”趣味數據報告 (2018).

https://www.hcr.com.cn/insightlist_20181107_162.html (검색일자: 2025. 04. 25)

MobTech研究院 2021年90后脫發調研報告 (2021).

<https://www.mob.com/mobdata/report/147> (검색일자: 2025. 06. 05)

艾瑞咨詢 中國毛發健康管理行業研究報告 (2024).

https://pdf.dfcfw.com/pdf/H3_AP202403121626361753_1.pdf (검색일자: 2025. 05. 16)

東方財富網 中國男性顏值經濟市場發展狀況与消費行爲調查數據 (2025).

<https://caifuhao.eastmoney.com/news/20250115010355798424520> (검색일자: 2025. 04. 20)

豆瓣 2024年中國脫發白發理療產業洞察報告 (2024).

https://www.douban.com/note/862699798/?_i=72052824qscMYd (검색일자: 2025. 04. 20)

谷和健康 你是哪种疲勞? 慢性疲勞的原因及干預措施 (2024).

<https://www.guhejk.com/wordpress/?p=15602> (검색일자: 2025. 04. 29)

國家自然科學基金委員會 NEJM : 間歇性禁食對健康、衰老和疾病的影響 (2021).

<https://www.nsf.gov.cn/csc/20340/20289/57885/index.html> (검색일자: 2025. 04. 25)

南方都市報 超八成受訪青年在意脫發問題, 壓力大熬夜睡眠障礙是主因 (2022).

https://epaper.oeeee.com/epaper/G/html/2022-05/23/content_9534.htm
(검색일자: 2025. 03. 29)

青眼情報 消費者洞察報告--防脫功效洗護 (2025).

https://pdf.dfcfw.com/pdf/H3_AP202503171644458885_1.pdf?1742294261000.pdf(검색일자: 2025. 04. 22)

人衛臨床助手 慢性疲勞綜合症 (2021).

<https://ccdasspmphai.com/appdisease/toPcDetail?sessionId=&knowledgeLibPrefix=disease&id=18088> (검색일자: 2025. 04. 25)

智研咨詢 2023年中國發廊行業全景簡析: 消費者年齡偏年輕化 (2024).

<https://www.chyxx.com/industry/1181932.html> (검색일자: 2025. 05. 16)

中國美容整形外科雜誌 中國人雄激素性脫發診療指南 (2019).

<http://medi-guide.meditool.cn/ymtpdf/E587EDF7-FBAD-1DAB-5CC9-9EDC649ADFAB.pdf> (검색일자: 2025. 03. 22)

ABSTRACT

The Influence of Hair Loss Symptoms on Scalp Condition, Scalp Care Behavior, and Interest in Hairstyles Among Chinese Men Aged 20 to 50

Chen Keqing

Department of Beauty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modern society, appearance is increasingly recognized not just as a form of self-expression but also as an important tool for communication in social relationships, with growing interest in male grooming. Recently, various acquired factors such as stress, unbalanced die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xcessive cosmetic treatments have accelerated hair loss. Consequently, hair loss is no longer limited to middle-aged individuals but is now seen as a common public health issue affecting all age groups. In particular, the increasing rate of hair loss amo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has been shown to affect self-esteem, social confidence, and overal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China, approximately 252 million people experienced hair loss as of 2020, with male pattern

baldness accounting for the majority. Interest in scalp health continues to rise, highlighting the growth potential of the hair loss treatment and scalp care industries. However, research on the specific correlations among hair loss symptoms, scalp condition, scalp care behavior, and interest in hairstyles in China remain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based on relevant prior research from Korea, ai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s among hair loss symptoms, scalp condition, scalp care behavior, and hairstyle interest among Chinese men aged 20 to 50. The study also sought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hair loss symptom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understanding age-specific hair loss responses and for establishing tailored service strategies and effective marketing approaches.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3 to 23, 2024, through an online survey targeting 422 Chinese men aged 20~50 with current or past hair loss experie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6 items covering five areas: general characteristics (5 items), hair loss symptoms (11 items), scalp condition (10 items), scalp care behavior (12 items), and hairstyle interest (8 item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MAC 27.0 and included frequency analysis, cross-tab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age group of 40 - 49 years old was the most represented. In terms of

education level, most had attended or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the majority were married. The most common occupation was in the sales and service industry, and the dominant range of monthly income was between 6,000 and 12,000 yuan.

Second, the condition of the scalp and hair varied. Hair was generally thin or damaged, and many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ir hair loss was in progress. The onset of hair loss was most commonly reported as having occurred within the past six months or less than five years ago. The most prevalent hair loss pattern was the C-shaped type, with stress and genetic factors identified as the main causes. By age group, those in their 30s showed a more severe progression of hair loss, those in their 40s recognized stress as the main cause, and those in their 50s pointed to skin conditions. Coping strategies also differed by age people in their 20s tended to seek medical treatment, those in their 40s focused on habit improvement, and those in their 50s showed a tendency to neglect the issue.

Third, as age increased, scalp condition tended to worsen, with those in their 40s and 50s showing generally poorer scalp health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At the same time, older age groups were more active in professional scalp care, scalp awareness, and scalp care behaviors. Interest in self-expression and social perception through hairstyles also increased with age. Furthermore, greater severity or amount of hair loss was associated with worse scalp condition, as well as notable differences in scalp care behaviors and interest in hairstyl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type of hair loss.

Fourth, symptoms of hair loss had a negative impact by worsening scalp condition and lowering both scalp care behaviors and interest in hairstyles. Conversely, a high level of interest in hairstyles acted as a motivating factor that promoted scalp care behaviors. Scalp condition also interacted with hair loss symptoms, creating a vicious cycle of deterioration.

In summary, although scalp condition deteriorates with age, interest in scalp care and hairstyle increases. Hair loss symptoms were found to negatively affect scalp condition, care behavior, and appearance perception.

While this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hair loss and scalp health among Chinese men aged 20~50, it also has limitations, including sample bias toward individuals in their 40s and reliance on self-reported online data. Future studies should aim to collect more objective data through clinical diagnosis and incorporate personalized strategies tailored to each age group. Moreover, hair loss care should be approached not just as an appearance issue, but as part of broader efforts to improve health and quality of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ervices that also support self-expression.

설문지

20~50대 중국 남성의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3분에 의거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20~50대 중국 남성의 탈모증상이 두피상태, 두피관리행동 및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문적인 목적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고 귀하의 솔직한 답변만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번거로운 시간이 되겠지만,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문지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응답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뷰티산업학과

지도교수 : 박 초 희

연구자 : 진 가 청

기타 본 연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ckqjiayou@naver.com

I.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살
- ② 30~39살
- ③ 40~49살
- ④ 50~59살

2. 귀하는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및 미만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재학 및 졸업
- ④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 귀하는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 ② 미혼
- ③ 기타(독신, 이혼, 사별, 별거 등)

4. 귀하는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문직
- ② 판매, 서비스직
- ③ 자영업
- ④ 사무직
- ⑤ 학생
- ⑥ 무직(취업 준비생 포함)
- ⑦ 기타()

5. 귀하는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000위안 미만 (50만원 미만)
- ② 3,000위안 이상~6,000위안 미만 (50만원~100만원 미만)
- ③ 6,000위안 이상~12,000위안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④ 12,000위안 이상~24,000위안 미만 (200만원~400만원 미만)
- ⑤ 24,000위안 이상 (400만원 이상)

II. 다음은 탈모증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두피 유형은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상 두피
- ② 건성 두피
- ③ 지성 두피(지루성 포함)
- ④ 민감성 두피
- ⑤ 비듬성 두피
- ⑥ 복합성 두피
- ⑦ 잘 모르겠다

2. 귀하의 현재 모발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끝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등의 손상 모발
- ② 가늘고 약한 모발
- ③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
- ④ 건조하여 윤기 없는 모발
- ⑤ 기름기 많은 모발

3. 귀하의 현재 두피 비듬의 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 ① 지성 비듬(끈적끈적한 비듬)
- ② 건성 비듬(마른 비듬)
- ③ 기타()

4. 귀하의 현재 탈모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약간의 탈모가 있다
- ② 다소 탈모를 가지고 있다
- ③ 탈모가 심한 편이다
- ④ 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5. 귀하는 탈모증상이 시작된 최초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개월 이하
- ② 2개월 이하
- ③ 6개월 이하
- ④ 1년 이하
- ④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6. 귀하는 탈모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M자형
- ② C자형
- ③ O자형
- ④ M+O자형
- ⑤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하루에 평균 탈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아주 적다(0~50개 이하)
- ② 적은 편이다(50~80개 미만)
- ③ 적당하다(80~100개 미만)
- ④ 많은 편이다(100~150개 미만)
- ⑤ 매우 많다(150개 이상)

8. 귀하는 탈모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유전적 요인
- ② 병적인 요인
- ③ 스트레스
- ④ 잦은 피머나 염색
- 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장애
- ⑥ 피부질환
- ⑦ 불량한 세척

9. 귀하가 생각하기에 비유전적인 경우 탈모의 3가지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나이
- ② 스트레스
- ③ 과로
- ④ 질병
- ⑤ 다이어트
- ⑥ 잦은 염색 및 헤어 시술
- ⑦ 두피질환 (비듬, 염증 등)
- ⑧ 기타()

10. 귀하는 탈모가 생활에 미치는 3가지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대인 관계 기피
- ② 자신감 결여
- ③ 입사 및 승진에 불이익
- ④ 결혼에 비호감 요소
- ⑤ 우울증 및 무기력증
- ⑥ 기타()

11. 귀하는 탈모증상에 대한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 ① 방치
- ② 식생활·생활습관 개선
- ③ 기능성 제품 사용
- ④ 미용실에 방문
- ⑤ 병원에 방문
- ⑥ 심리 상담을 받다
- ⑦ 기타()

Ⅲ. 다음은 두피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피상태에 관한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두피에 자극을 쉽게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두피가 쉽게 붉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두피가 건조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두피에 가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두피에 염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두피에 상처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두피에 유분이 많고 냄새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두피에 피지와 트러블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두피에 비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두피관리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피관리행동에 관한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두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두피와 모발 관리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관리를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문 장소에서 두피, 모발 관리는 전문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속적인 모발과 두피의 관리가 모발과 두피의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속적인 모발과 두피의 관리가 탈모 방지/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지속적인 모발과 두피의 관리가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속적인 모발과 두피의 관리할 때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두피·모발의 건강을 위해 폼, 염색, 왁스, 스프레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두피·모발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모발과 두피를 관리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두피·모발의 건강을 위해 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두피, 모발의 건강을 위해 영양 섭취를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두피, 모발의 건강을 위해 두피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 관심도에 관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풍성한 모발이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유지할 때 자신감을 생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헤어스타일이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풍성한 모발을 위해 모발이식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좋은 모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발 상태는 첫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외출할 때 머리를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調查問卷

本調查的內容根據統計法絕對保密，除了研究目的外，絕不對外使用

脫發症狀對20至50歲中國男性頭皮狀態、頭皮管理行為及發型關心度的影響

您好！

本問卷調查是爲了了解“脫發症狀對20至50歲中國男性頭皮狀態、頭皮管理行為及發型關心度的影響”我們承諾，除了學術目的外，不會用于其他任何目的。

本次問卷沒有正確答案。請以輕鬆的心情仔細閱讀，并填寫您的真實答案。

您的誠實答复是達到本研究目的。會被用作非常珍貴的資料。在百忙之中，雖然會很麻煩，但請真誠地回答，如果對問卷調查有疑問，請通過以下郵件諮詢。

最后，感謝協助問卷的所有人，真心感謝大家抽出寶貴的時間回答問題。

2024年 12月

誠信女子大學一般研究生院美容產業系

指導教授：朴初禧

研究者：陳柯晴

其他有關本研究的諮詢事項請聯系以下聯系方式

郵箱：ckqjiayou@naver.com

I. 以下是關於一般特征的問題。

請閱讀問題，并在相應的號碼上標記“✓”。

1. 請問您的年齡是多少？

- ① 20~29歲
- ② 30~39歲
- ③ 40~49歲
- ④ 50~59歲

2. 請問您的最終學歷是什麼？

- ① 中學畢業及以下
- ② 高中畢業
- ③ 大學在校或畢業
- ④ 研究生在校或畢業

3. 請問您的婚姻狀態是什麼？

- ① 已婚
- ② 未婚
- ③ 其他(單身, 離婚, 喪偶, 分居等)

4. 請問您的職業是什麼？

- ① 專職人員
- ② 銷售員
- ③ 个体戶
- ④ 白領
- ⑤ 學生
- ⑥ 无業(包括就業準備生)
- ⑦ 其他()

5. 請問您的家庭月均收入是多少？

- ① 3,000元及以下 (50万韓元 以下)
- ② 3,000元以上~6,000元及以下 (50万韓元以上~100万韓元 以下)
- ③ 6,000元以上~12,000元及以下 (100万韓元以上~200万韓元 以下)
- ④ 12,000元以上~24,000元及以下 (200万韓元以上~400万韓元 以下)
- ⑤ 24,000元及以下 (400万韓元 以下)

II. 以下是關於脫發症狀的問題。

請閱讀問題，并在相應的號碼上標記“√”。

1. 請問您認為自己的頭皮類型是什麼？

- ① 正常頭皮
- ② 干性頭皮
- ③ 油性頭皮(包括脂溢性)
- ④ 敏感性頭皮
- ⑤ 頭屑型頭皮
- ⑥ 混合型頭皮
- ⑦ 不清楚

2. 請問您現在頭髮的狀態是什麼？

- ① 末端斷裂或斷裂等損傷毛發
- ② 纖弱的頭髮
- ③ 柔順的頭髮
- ④ 干燥粗硬的頭髮
- ⑤ 油膩的頭髮

3. 請問您的頭皮屑狀態是什麼？

- ① 油性頭皮屑(粘稠的頭皮屑)
- ② 干性頭皮屑(干燥的頭皮屑)
- ③ 其他 ()

4. 請問您現在的脫發程度是怎樣？

- ① 有点脫發
- ② 少量脫發
- ③ 脫發較為嚴重
- ④ 脫發很嚴重

5. 請問您的脫發症狀最初是從什麼時候開始的？

- ① 1个月以下
- ② 2个月以下
- ③ 6个月以下
- ④ 1年以下
- ⑤ 5年未滿
- ⑥ 5年以上

6. 請問您的脫發類型是什麼？

- ① M字形
- ② C字形
- ③ O字形
- ④ M+O字形

7. 請問您平均一天的脫發量是多少？

- ① 非常少(0~50根以下)
- ② 比較少(50~80根以下)
- ③ 适当(80~100根以下)
- ④ 比較多(100~150根以下)
- ⑤ 非常多(150根以上)

8. 請問您認為導致脫發的最大因素是什麼？

- ① 遺傳因素
- ② 生病原因
- ③ 壓力
- ④ 頻繁的燙發或染發
- ⑤ 過度減肥導致的營養不足
- ⑥ 皮膚病
- ⑦ 不正確的清洗

9. 請問您認為非遺傳性脫發的三個重要的原因是什麼？

- ① 年齡
- ② 壓力
- ③ 勞累過度
- ④ 疾病
- ⑤ 減肥
- ⑥ 頻繁的染發，燙發等
- ⑦ 頭皮疾病(頭皮屑，炎症等)
- ⑧ 其他()

10. 請問您覺得脫發會對生活造成的三个重要原因是什么？

- ① 回避人際關係
- ② 缺乏自信
- ③ 對入職和晉升不利
- ④ 對婚姻沒有想法
- ⑤ 憂郁症及無力感
- ⑥ 其他()

11. 請問您用什麼辦法解決頭皮，毛發，脫發的煩惱？

- ① 置之不理
- ② 改善飲食·生活習慣
- ③ 使用功能性產品
- ④ 去相應的美容院
- ⑤ 去訪問醫院
- ⑥ 去接受心理諮詢
- ⑦ 其他()

III. 以下是關於頭皮狀態的問題。
請閱讀問題，并在相應的號碼上標記“√”。

關於頭皮狀態的問題	完全不 認同	不認同	一般	認同	完全 認同
1. 頭皮容易受到刺激	①	②	③	④	⑤
2. 頭皮容易泛紅	①	②	③	④	⑤
3. 頭皮干燥	①	②	③	④	⑤
4. 頭皮發痒	①	②	③	④	⑤
5. 頭皮發炎	①	②	③	④	⑤
6. 頭皮有很多傷口	①	②	③	④	⑤
7. 頭皮很油膩且有异味	①	②	③	④	⑤
8. 頭皮有皮脂和痘痘	①	②	③	④	⑤
9. 頭皮有頭皮屑	①	②	③	④	⑤
10. 頭皮有緊繃感	①	②	③	④	⑤

IV. 以下是关于头皮管理行为的问题。
请阅读问题，并在相应的号码上标记“✓”。

關於頭皮管理行為的問題	非常 不認 同	不認 同	一般	認同	非常 認同
1. 我認為需要頭皮管理	①	②	③	④	⑤
2. 看到別人接受頭皮和毛發護理，我也想要接受護理	①	②	③	④	⑤
3. 我認為頭皮·頭發護理應該去專業場所進行護理	①	②	③	④	⑤
3. 我認為持續的管理頭發和頭皮有助於改善頭發和頭皮的狀態	①	②	③	④	⑤
5. 我認為持續的護理頭發和頭皮有助於防止/緩解脫發	①	②	③	④	⑤
6. 我認為持續的護理頭發和頭皮有助於提高社會生活的自信	①	②	③	④	⑤
7. 我認為持續的護理頭發和頭皮會減少我的壓力	①	②	③	④	⑤
8. 我認為為了頭皮·頭發的健康應該減少染發，燙發，發蠟和噴霧的使用	①	②	③	④	⑤
9. 我認為為了頭皮·頭發的健康應該有規律的管理頭皮和頭發	①	②	③	④	⑤
10. 我認為為了頭皮·頭發的健康應該要選擇相對應的頭皮·頭發的產品	①	②	③	④	⑤
11. 我認為為了頭皮·頭發的健康應該要注意營養攝取	①	②	③	④	⑤
12. 我認為為了頭皮·頭發的健康應該去做頭皮按摩	①	②	③	④	⑤

V. 以下是關於髮型關心度的問題。

請閱讀問題，并在相應的號碼上標記“✓”。

關於髮型關心度的問題	非常 不 認 同	不 認 同	一 般	認 同	非常 認 同
1. 我認為濃密的頭髮讓我有信心	①	②	③	④	⑤
2. 我認為保持美麗的頭髮就會讓我產生自信	①	②	③	④	⑤
3. 我認為髮型對自己形象起着至關重要的作用	①	②	③	④	⑤
4. 我愿意為了擁有濃密的頭髮接受毛發移植	①	②	③	④	⑤
5. 為了給別人留下好印象，我比較注重保持良好的頭髮狀態	①	②	③	④	⑤
6. 為了給別人留下好印象，我會嘗試合適的髮型	①	②	③	④	⑤
7. 我認為毛發狀態對第一印象很重要	①	②	③	④	⑤
8. 我為了給別人留下好印象，在外出時花很多時間管理頭髮	①	②	③	④	⑤